

完板 沈清傳의 文學的 分析

柳 錫 一

- | | |
|----------------|------------------|
| I. 序 言 | 2. 本文轉化에 의한 親疎關係 |
| II. 完板沈清傳의 流布本 | 3. 册板移動과 系譜 |
| III. 文學的 分析 | IV. 結 言 |
| 1. 形態에 의한 分析 | |

I. 序 言

沈清傳의 流布本에 대한 比較研究는 吳世夏(1962)¹⁾ 宋奩洛(1967)²⁾ 史在東(1971)³⁾ 崔文和(1976)⁴⁾ 金興圭(1977)⁵⁾ 등에 의하여 행하여졌는데 異本考로서 단독 연구는 吳世夏의 論文뿐이고, 다른 분들은 綜合研究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런대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연구자의 기호나 편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根本的인 分析 比較가 기대되는 現今이다.

沈清傳은 판소리계 小說로서 坊刻화된 것인데 坊刻本으로서는 京板系(安城板 포함)와 完板系가 있다. 그런데 이 京板系나 完板系의 比較연구에 앞서 京板은 京板系끼리의 親疎關係가 밝혀지고 完板은 完板系끼리의 親疎關係가 밝혀져야 하고, 다음 完板과 京板을 比較 檢討함으로써 沈清

-
- 1) 吳世夏: '沈清傳 異本考', 「국문학 6집」(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62) pp. 109~119.
 - 2) 宋奩洛: 「沈清傳 研究」(高大 大學院 1967).
 - 3) 史在東: '沈清傳 研究序說', 「語文研究」7 (大田 語文研究會 1971).
 - 4) 崔文和: 「坊刻本沈清傳研究」(高麗大 教育大學院 1976).
 - 5) 金興圭: '판소리의 二元性과 社會背景', 「韓」66호 (東京, 韓國研究院 1977).

傳의 系譜는 設定되어지고 各個 本의 위치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바탕 위에서 文藝學的 研究가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坊刻本을 兼備衆本하여 各 板本의 相互親疎를 本格的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完板本의 正體를 밝혀 보려는 것이 本 研究의 主題인데, 여기서는 完板 沈淸傳이 分析對象이 된다.

Ⅱ. 完板 沈淸傳의 流布本

現在까지 알려져 있는 流布本들의 그 書誌의 특징을 기술하여 만든 것은 다음 도표와 같다.

A는 朴魯春 金根洙 교수의 所藏本으로 上卷(30b)에 ‘乙巳未月完山開刊’⁶⁾, 下卷(41a)에 ‘乙巳仲秋完山開刊’으로 되어 있어서 1905년에 刊行된 것이다.⁷⁾ 書體는 行書指向의인 性向이 약간 있는 楷書이다. 完板의 後期楷書體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縱厚橫薄한 行書指向의 楷書體요, 다른 하나는 縱厚橫薄하지만 右肩上向한 楷書體인 것이다. 이 A는 前者에 속하며 刊記가 명확한 것이어서 原典措定의 基準本이 될 수 있는 善本이다.

B는 國立圖書館 所藏本(한-48-46)으로 71장 1冊인데 그 板型은 A와 같으나 內容에 있어서 變容을 가져 온 異本이다.

上卷(30b)에 ‘심청전 상중’이라고 쓰여진 옆에 漢字로 굵직하게 ‘完西溪新板’이라고 있으며, 下卷(41a)에 2行으로 ‘大韓光武十年丙午孟春完西溪新刊’이라 새겨져 있으므로 1906년 西溪書舖에서 刊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刊記 밑에 ‘完西溪信’이란 4角 도장이 찍혀져 있고, 書體는 역시 A의 것과 같은 楷書이지만, 刻手의 기술에 따른 것인지 조금 疎粗한 느낌이 드는 書體이다.

6) 未月은 六月을 가리킴. 따라서 이 심청전 上卷은 1905년 6월에, 下卷은 8월에 刊行되었음.

7) 이 乙巳의 年代를 1905년이라고 보는 까닭은 完板書體의 발달을 史的으로 보았을 때 1900년 以後에 이러한 書體가 나타나고, 또 그 板型이나 제반 관계를 보아서도 1905년이 타당하다.

〈圖-1〉

完板 沈清傳의 流布本

번호	書名	張數		版心題	刊記	補刻	書體	發行書舖	所藏者	備註
		上	下							
1	심청전 (음각) A	30	41	심청상 (1,2,9,10) 심청가 上 下 심청전 (19)	上: 乙巳未月 完山開刊 下: 乙巳仲秋 完山開刊	없음	行書指向 의楷書體	?	朴魯春 金根洙	· 下卷 卷頭 分卷名 없이 本文으로 계속
2	심청전 B	30	41	심청상 (1,2, 9,10) 심청전 上 심청가 (8)	上: 심청전상 종完西溪 新板 光武 下: 大韓光武 十年內午孟 春完西溪新 刊, 심청전 상하권중	없음	楷書體	西溪書舖 (1911)	국립도서 관 서울대	〈한-48-46〉(국립도서관) 〈가람古-813.5-si4if〉(서울대) · 序頭: 蓮花 · 下卷 卷頭 分卷名 없이 本文으로 계속
3	심청전 (음각) C	30	41	A와 同	A의 刊記는 削除됨	없음	A와 同	西溪書舖 (1911)	柳鐸一	· 後精紙에 「열여춘향슈결가」上 제16장이 부착되어 있다. · 前精紙에는 「열여춘향슈결가」下의 글장 이 부착되어 있다. · 열여춘향슈결가(西溪本)와 同一版元 · 卷의 後刷本 · 下卷 卷頭 分卷名 없이 本文으로 계속
4	심청전 (음각) D	30	41	A와 同	없음	A의 原本本 에다가 補 刻했음 보각: (上) 14,16 (下) 2,3,5, 10,11,12	行書指向 의楷書體	多佳書舖 (1916)	金東旭 서울대	· A의 補刻刊行本 · 「全集」2册 pp.143~178에 수록. · 下卷 卷頭 分卷名 없이 本文으로 계속
5	심청전 E	30	41	심청상 (23,24) 심청상 (그의 전부) 심청전 下 심청전 下) 混用	없음	上 7, 8, 23, 24 는 ACD 와 同一板 外는 補 刻	橫薄縱厚 楷書體	多佳書舖 (1916)	金東旭 국립도서 관 柳鐸一 朴永淳	· 序頭: 花紋魚尾 〈한-48-46-3〉(국립도서관) · 影印本: 「古代國文小說選上」(大提閣) · 「全集」2册 pp.179~214에 수록 · 下卷 卷頭 分卷名 없이 本文으로 계속

C는 柳鐸一 所藏本으로 1911년의 西溪書舖의 版權紙가 붙은 책이다. 이는 A와 同一板本이나 A의 刊記를 削除해 버린 것만 다르며, A보다 後刷本이다. 楷紙에 「열여춘향슈결가」 上卷 제16장이 붙어 있어서 그 「열여춘향슈결가」와 同一版元임을 알 수 있다.

D는 金東旭 서울大 가람文庫에 各各 所藏되어 있으며, 金東旭 교수 所藏本은 「全集」(第二册 pp.143~178. No.50)에 影印되어 있다. A에 훼손된 板을 補刻(上: 14 16, 下: 2 3 4 5 10 11 12)한 板本이다.

E는 金東旭 國立圖書館(한-48-46-3) 朴永弼 柳鐸一이 各各 所藏하고 있는데, 이것도 「全集」(第二册 pp.179~224. No.51)에 영인되어 있다.

이상 A~E들의 共通된 특징은 板型이 同一하다는 것이요, 다음은 分卷이 上 下로 되어 있으나, 下卷의 첫머리에 卷頭書名이 없고 바로 各설……, 하고 本文이 시작되어 있는 점이다. 이들은 同型異板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史的 變容을 알기에 容易한 것들이다.

이들 A~E의 特徵과 相互關係를 外形으로 類別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本文의 轉化樣相을 比較하여 그 血緣的 系譜를 設定하기로 한다.

Ⅲ. 文獻學的 分析

1. 形態에 의한 分析

이 5種의 異本은 同型異板本이기 때문에 張·行·字數가 동일하다. 즉 張數는 上卷이 30장 下卷이 41장으로 71 장본들이며, 每半葉의 行數는 13行 20字로 統一되어 있다.

各 本에 나타나는 序頭의 形態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 이를 中心으로 分類해 보면,

花紋魚尾 書名陰刻形

花紋魚尾 書名陽刻形

蓮花紋 書名陽刻形

등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제 1 유형은 ACD이며, 제 2 유형은 E이며, 제 3 유형은 B 뿐이다.

그러나 沈清傳들은 上下 2卷으로 分類되어 있지만, 下卷 序頭에는 上卷과 같은 卷頭題目이 없이 바로 本文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下卷 序頭形態에 따른 異本 구별은 不可能하다.

또 이 5種의 魚尾들을 基準으로 分類해 보아도 역시 A C D E는 같은 계열로 나타나고, B만은 獨立된 계열로 나타난다.

〈圖-2〉 沈清傳의 序頭形態

卷	A	B	C	D	E
上	沈清傳	沈清傳	沈清傳	沈清傳	沈清傳
卷	沈清傳	沈清傳	沈清傳	沈清傳	沈清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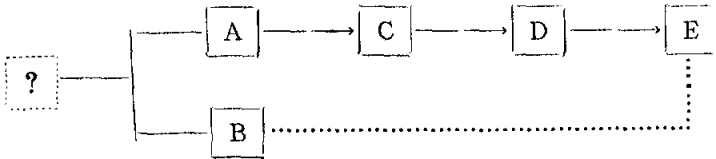
沈清傳들의 版心題를 분류해 보면 ‘심청’ ‘심청전’ ‘심청가’ 등 3種類로 나타나는데, ‘심청가’는 5種 모두 上卷 제8장에 同一하게 새겨져 있었고 ABCD 들은 주로 ‘심청전’이고 ‘심청’도 간혹 들어 있으나, E의 版心題는 上卷에서는 거의 모두 ‘심청’이고 ‘심청전’은 4곳만 있다. 한편 下卷에는 反對로 ‘심청전’이 많고 ‘심청’이 9군데(9, 10, 26, 33, 35, 37, 38, 39, 40)가 있는데 下 34만은 ‘심청가’로 되어 있다. 沈清傳이라는 소설의 版心題가 ‘심청가’로 새겨져 있다는 것은 沈清傳이 歌의 형식에서 散文인 小說로 變移했다는 사실을 일러 주는 흔적이라고 본다.

어떻든 이상에서 살펴 본 바로는 沈清傳 5種의 異本은 ACDE와 B의 두 계열로 나누어지는데, B는 단독본이니 상호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ACDE의 4種을 書體와 板型을 基準으로 하여 그 系統을 찾아 본다.

AC는 同一本인데 C는 刊記를 깎아 버린 것만이 A와 다르며(同一本이므로 AC로 表示함), D는 AC의 册板에다가 上卷 제14 16장과 下卷 제 2 3 5 10 11 12장 등 8장만을 補刻하여 만든 것이다. E는 D의 板 중 上 제 7 8 23 24장의 4장(이것은 A와 同一板이 된다)만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改刻하여 刊行한 것이다. 그러므로, E는 內容에 있어서 많은 本文 轉化가 이루어졌지만 板型만은 A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

고 있다. 그러나 E는 序頭形態에서 花紋魚尾로 볼 때 A의 형식과 같지만, 序頭 書名의 형태로 보면 E는 B와 같기 때문에 E는 B의 영향도 입었으리라고 推定한다. 하지만 E에 D의 册板 4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E의 내용은 D와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것은 異文 비교에서 밝혀 질 것이다. 일단, 형태만을 보아서 A→C→D→E의 系譜가 設定된다.

B는 A와 同型異板의 관계이지만 CDE와는 거리가 있는 별개의 계열이며, 또 A는 1905년 刊行本이고 B는 1년 후인 1906년에 出版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系譜는 다음과 같이 두 계열로 設定된다.



이상에서 외부형태를 주로 하여 일단 沈淸傳의 完板系統의 系譜를 만들어 보았다.

2. 本文轉化에 의한 親疎關係

外形에 의해 沈淸傳의 5種을 分析해 본 결과를 앞에서 叙述하였다.

이제 이 外形에 의해 도출된 結果가 本文(text) 轉化에 의해서 分析한 結果와 同一한 것인가 確認하고자 한다. 먼저 A~E까지 各 張에서 발견되는 任意의 異文을 한 개씩 선택하여 그들의 相互關係를 分析하려고 한다. 그런데, 各 本의 異文을 있는대로 每擧하기는 紙面 關係상 省略할 수 밖에 없고 이들 상호關係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황하지만 各 本 各 張에 한 개씩 모두 71個의 異文을 선택하였다. (異文의 例는 資料 참조)

이 異文 71개의 關係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各 本의 符號를

A→○ B→× C→□ D→△ E→☆

과 같이 使用하여 各 異本 間의 比較를 表示한 것이 다음 3<圖-3>이다,

〈圖-3〉 完板 沈清傳 各 本 異文 對比表

※ 異文번호 중 1~30은 上卷의 張數이며, 31~71에서 30을 빼면 下卷의 張數가 됨

番 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	☆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에 보인 異文 對比表를 가지고 各 本의 親疎關係를 파악하기 위해서 各 本 異文의 異同을 모아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圖-4〉가 作成되었다.

〈圖一〉 完板沈清傳 各本の異同에 의한 親疎關係

番 大	23	24	1	2	13	17	18	19	20	21	22	26	27	28	29	30	34
A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	☆	☆
	a				b												
36	37	38	47	48	50	51	52	55	58	59	60	61	62	64	66	68	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71	4	6	9	15	25	31	39	44	46	49	53	54	56	65	3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10	11	12	43	45	57	63	67	7	8	14	16	32	33	35	41	42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e		f		g		h			i

앞페이지의 <圖-4>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A와 C는 相互 異文이 發見되지 않고 本文이 완전히 동일한데 A에 있는 刊記 ‘乙巳仲秋完山開刊’을 削除해 버린 것만 다를 뿐이니 本文의 轉化가 없는 同一本이다.

둘째, D는 A와 비교해 볼 때, 異文 번호 14 16 32 33 35 40 41 42(f g h i)만을 除外하면 A와 같다. 그런데 이 8種의 異文이 들어 있는 張(上卷 제14 16장, 下卷 제 2 3 5 10 11 12장)은 모두 補刻된 판이기 때문에 14 16 32 33 35 40 41 42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D는 A의 板을 그대로 使用하고서 前記한 8장만 補刻한 補刻本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overline{AC} \rightarrow D$ 의 관계가 成立되는 것이다.

셋째, B는 \overline{AC} 와 71個의 異文으로 비교했을 때, 43개는 같고 23개는 서로 다름이 확인된다. 그런데 B는 \overline{AC} 와 板型은 같을지라도 別個로 生成된 독립본이며, \overline{AC} 와 비교하면 本文의 轉化部分을 많이 保有하고 있는 別個의 異本으로 간주된다.

넷째, E를 \overline{AC} 와 비교했을 때, 異文 71개 중 같은 것이 4개 다른 것이 67개나 되어서, A 계열과는 다른 別個의 異本이라 看做할 수 있고, 또 B와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이 10個가 있으니 B와도 일맥이 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E속에는 A와 같은 異文 4개 7 8 23 24(a e)는 \overline{AC} 의 冊板(上卷 제 7 8 23 24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印出한 것이기 때문에 本文 比較에서 같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冊板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E는 \overline{AC} 계열의 沈清傳인 것이다.

그러면, 왜 E는 \overline{AC} B D 중 가장 많은 異文을 保有하고 있어 다른 系列의 異本처럼 보이는 板本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E는 沈清傳 계열로서는 제일 늦게 出版된 것이다. 그런데 冊板은 시간의 경과 및 多量의 印出으로 인하여 磨滅되기 마련이다. \overline{AC} 의 깨끗한 冊板이 D를 刊行할 즈음에는 8장의 補刻만으로도 충분했지만, E를 刊行할 무렵에는 새로이 改刻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磨滅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D에는 8장의 補刻板이 포함되어 있고, E에서는 원래의 初刻板 4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改刻하였다. 이렇게 補刻 혹은 改刻할 때는 내용이 미진한 곳을 수정하고

(資料 참조), 어려운 어휘를 쉽게 고치고(資料 -45 참조), 이미 사용되지 않는 어휘를 당시에 사용하던 어휘로 바꾸기도 하니(資料 -9, 42, 45 참조), D 특히 E에서는 자연히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本文轉化가 있었던 다른 所以를 기존의 板型을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의도아래 補刻 또는 改刻하였던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가령 $\overline{AC} B D$ 에서 ‘인당수레라광풍이’(下 4b 2~3)가 E에서는 ‘인당수라 광풍이’(下 4b 2~3)로 변했는데, ‘레라’: ‘라’와 같이 ‘레’가 삭제되면서 그 자리만큼 빈칸으로 남겨놓고 있다. 이는 기존의 板型을 유지하려는 保守性에서 기인된 異文이다.

어떻든, E는 \overline{AC} 의 册板 4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서 E가 \overline{AC} 의 系列임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런데, E는 \overline{AC} 의 板을 改刻하면서 그 내용에 變化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變化된 내용을 B에서도 찾을 수 있다. B와 E가 同型異板本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本文 形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는 E보다 앞선 1906년에 板刻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B의 本文이 E의 本文 形成에 간접적이거나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overline{AC} 와 B는 同型異板本이며 그것들의 本文에 있어서는 많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相互異文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overline{AC} 와 B가 刊行되기 이전에 벌써 그 祖本이 刊行되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그 祖本の 有無와 板刻 刊行된 연대는 지금의 자료로써는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本文의 轉化 즉 各本の 本文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기준으로 沈淸傳의 系譜를 試圖해 보았으나, 아직 혹족한 결론을 유도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西溪書舖의 版權紙가 붙어있는 C가 西溪書舖 刊行의 有刊記本 B와 版元이 같으면서도 本文轉化 樣相으로는 B와 別個의 系統이 되는데, 오히려 C는 版元未詳인 A와 同一板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版元移動의 過程을 밝힘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3. 册板移動과 系譜

이상 異文比較에서 얻은 결과에 몇 가지 의문점이 나타났다.

첫째, \overline{AC} 가 1905년에 刊行되고, 다시 이듬해 1906년에 B가 刊行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C는 A와 同一한 板을 사용하면서도 C의 末尾에 1911년의 西溪書舖 版權紙가 붙어 있고, D는 C와 같이 A의 板을 사용하였으면서도 C와는 다른 1916년의 多佳書舖 版權紙가 부착되어 있는데, 동일한 冊板을 다른 書舖에서 사용하여 刊行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게다가 別系의 B에는 엄연히 ‘大韓光武十年丙午孟春完西溪新刊’이란 刊記가 있어서 西溪書舖刊本임이 確實하다. 어떠한 事情이 있었기에 이같은 형상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 얻은 결론인 B와 A→C→D→E의 系譜가 版元別로 보자면 ABC와 DE의 두 版元으로 나누어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 提起된 3가지 의문이 풀리어 질 때 앞서 設定된 沈清傳의 系譜가 더욱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은 全州地方의 書店의 變遷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그 문제 해결이 원만해지리라 본다.

첫째, \overline{AC} (乙巳本)와 B(丙午本)의 문제이다.

먼저 乙巳本の 刊行年代가 1905년이나 아니면 1845년이나 하는 문제이다. 或者는 이 ‘乙巳’를 1845년이라고⁸⁾ 하지만, 筆者가 乙巳本을 면밀히 검토하고 完板小說 刊行의 歷史性 내지 다른 完板小說들의 書體를 서로 비교하여 얻은 結論은 1905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의 하나는 完板小說의 書體의 類型과 그 變遷을 두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약간 言及은 하였지만 後期 完板 楷書는 2系列로 나누어 지는데 縱厚橫薄한 行書指向의 楷書體와 역시 縱厚橫薄하지만 右肩上向한 楷書體이다. 이들은 다 1900년을 前後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右肩上向의 楷書體는 더 後期에 나타난 書體이다. 이 「심청전」은 縱厚橫薄한 行書指向의 楷書體인데 劉忠烈傳의 壬寅本(1902年 刊)과 같은 類의 書體이다. 그리고 印出된 圖書 즉 乙巳本 「심청전」(\overline{AC})을 形態書誌面에서 分析해 보아도 1905년보다 앞선 1845년이라고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따

8) 宋昞洛: 「沈清傳研究」(高大 大學院 1967),

라서 乙巳本은 1905년에 刊行되었던 것이라고 본다.

丙午本은 刊記에 ‘大韓光武十年丙午孟春完西溪新刊’이라고 明記되어 있으니, ‘光武十年丙午’는 1906년이 확실하다. 그러나 全州에서는 一年을 隔하여 2종류의 沈淸傳이 刊行되었다. 이렇게 刊行될 수 있었던 까닭은 丙午本을 刊行한 西溪書舖 以外の 坊刻本 出版書舖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乙巳本은 西溪書舖가 아닌 다른 冊房에서 먼저 刊行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당시에 坊刻小說을 刊行했던 冊房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가 문제된다. 筆者 所藏의 完板「화룡도」의 卷末刊記에 보면 ‘양척방戊申八月完山梁冊房開刊’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戊申年은 1908년이니 이때 全州에 梁冊房이라는 冊房이 있었음이 確認된다. 이 梁冊房은 1916년에는 多佳書舖로 改名하였고, 1930年代에 와서 다시 梁冊房으로 고쳤던 書店이다. 이로 볼 때 乙巳本과 丙午本이 1년을 隔하여 刊行될 수 있는 素地는 多分하다고 본다.

둘째, 版權紙에 의한 版元問題이다.

完板 沈淸傳의 異本들은 \overline{ACBD} E本의 4種이 있는데 C D E에는 版權紙가 붙어 있다. B에는 版權紙가 없지만 刊記가 完西溪書舖로 되어 있기 때문에 西溪書舖 刊行本임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C에는 1911년의 西溪書舖(卓鍾佶 發行)의 版權紙가 붙어 있고 D E에는 1916년 多佳書舖(梁珍泰 發行)의 것이 附着되어 있다.

C는 A 즉 乙巳本과 同一板이므로 乙巳本도 西溪書舖刊行이 된다. D E는 多佳書舖의 版權紙가 있는 것으로 보아 多佳書舖 刊本임이 分明하다. 그런데 문제는 A와 B가 모두 西溪書舖에서 刊行되었다는 사실로 나타나니, 西溪書舖에서는 1905年 6월에 乙巳本을 간행하고 일년이 못되어서 다시 丙午本도 刊行하였다는 뜻이 된다. 또 1916년 多佳書舖의 版權이 붙은 D와 E가 \overline{AC} 의 冊板을 使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多佳書舖 刊行本에 西溪書舖의 冊板이 들어 있다는 점이니 두 개의 다른 冊房의 冊板이 어찌 되었기에 混合되어 印出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A는 版元未詳이며, 西溪書舖의 版權이 붙어 있는 C

는 西溪書舖에서 刊行된 B가 아닌 A의 冊板을 사용하였으며, 多佳書舖에서 刊行한 D도 A의 冊板을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A는 B와 다른 版元을 가지며, D의 版元인 多佳書舖에서 B보다 1년 먼저를 A가 간행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글을 인용한다.

梁承坤氏 말에 依하면 西溪書舖는 그의 伯父되는 梁元仲氏가 경영한 것이며, 多佳書舖는 그의 先考인 梁珍泰氏가 경영하던 것인데 그의 伯父가 別世한 뒤로는 梁珍泰氏가 兩書舖를 습쳐서 自己에게까지 傳來된 것이라고 한다⁹⁾

이 글은 「文章」 第二卷 2月號(1940, 2)에 실려 있는 尹圭涉의 ‘完版’이라는 隨筆에서 引用한 것이다. 이 記錄이야말로 全州의 西溪書舖 多佳書舖 梁冊房의 歷史를 알려 주는 참으로 값진 글이다.

이 글을 간추려 보면 西溪書舖는 梁承坤의 伯父인 梁元仲이 經營하였고 多佳書舖는 그의 父親인 梁珍泰가 경영하였는데, 西溪書舖의 經營者인 梁元仲이 死亡한 뒤로 西溪書舖는 多佳書舖로 합쳐졌다는 것이다.

多佳書舖와 西溪書舖가 습하여 함께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위에 提起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多佳書舖에서 改刻 刊行된 E에 西溪書舖의 版權이 붙어 있는 AC의 冊板 4장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兩書舖가 합쳐짐에 따라 冊板의 混用이 可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구나 E가 沈清傳으로는 1910년 안팎에 刊行된 最後의 刊本이라는 데서 더욱 확실해진다. 多佳書舖와 西溪書舖가 합쳐 질 때는 1911년에서 1916년까지 5년 사이라고 볼 때¹⁰⁾ E의 刊行은 1911년 以後 1916년 以前이 된다.

세제, 版權紙의 使用 問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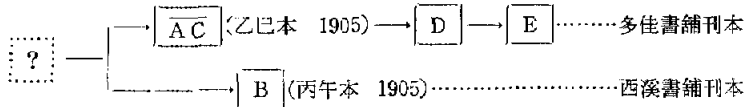
AC와 D E는 冊板의 사용면에서 同一系列임이 판명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AC에는 西溪書舖의 版權이, D E에는 多佳書舖의 版權이 붙어서 同一系列의 板本이 다른 版元으로 販賣되었을까 하는 문제이

9) 尹圭涉: ‘完版’ 文章 第2卷 2號, 1940. 2, 서울, 한국문화개발사 (영인) p.202.

10) 西溪書舖의 版權紙는 1911년(明治 44)의 것만 있고 그 以後의 것은 없다. 또 多佳書舖의 版權紙의 연대는 1916년(大正 5년)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 위에 引用한 尹氏의 글을 믿는다면, 多佳書舖와 西溪書舖의 경영자가 형제간이었고 多佳書舖의 前身인 梁册房은 出版法이 공포된 後에 정식으로 書舖登錄을 하지 못했으므로 梁册房 주인은 그곳에서 刊行한 책을 親兄이 從事하고 있었던 西溪書舖의 版權紙를 利用하여 판매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西溪書舖의 刊本은 1906년에 刊行한 B 즉 丙午本 뿐이고, 多佳書舖系列의 것은 비록 版權紙는 西溪書舖로 붙었지만 실질적 刊行은 多佳書舖의 前身인 梁册房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 册板은 그 以前부터 板刻되어 온 것이지만 AC는 多佳書舖의 出版許可登錄이 된 1916년 이전 1905년 이후 12년 동안 印出된 것이고 多佳書舖의 版權이 붙은 沈淸傳 D E는 1916년 이후에 印出된 것이 된다.

이렇게 되고 보니 版權紙에 의한 ABC의 西溪書舖 刊本과 DE의 多佳書舖 刊本の 系譜는



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刊行 册房이 다르기 때문에 乙巳本과 丙午本은 1년이 못되는 차이를 두고 刊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各 異本에 나타난 本文의 轉化에 의한 親疎關係 및 그것들의 版元을 推究한 결과를 중심으로 完板 沈淸傳의 系譜를 확정하고 各 本에 대한 命名을 한다.

〈圖-5〉 完板 沈淸傳의 系譜

종류	?	AC	B	D	E
年代	?	1905	1905	1911~1915	1916이후
系譜	?	(71장본) → (71장본) → (71장본)	(71장본)	(71장본)	(71장본)
命名	?	乙巳本	丙午本	補刻乙巳本	同型改刻乙巳本
所藏者	?	朴魯泰·金根孫·柳澤一	國立圖書館 朴魯泰	金東旭 朴魯泰	金東旭·國立圖書館 柳澤一·朴魯泰

IV. 結 言

이상에 現在까지 알려진 完板 沈清傳 5種을 가지고 文獻學的 側面에서 그 刊行年代 및 系譜를 設定해 보았다. 그 結果 4種의 異本으로 나누어졌고, 同一祖本을 가진 이 4個의 異本은 多佳書舖系列과 西溪書舖系列로 나누어지는데 多佳書舖系列은 乙巳本(AC), 補刻乙巳本(D), 改刻乙巳本(E)이며 西溪書舖系列은 丙午本(B)하나 뿐이다.

이들은 1905년 이후 日帝時까지 걸쳐서 刊行되었는데 그 祖本은 19C 후기에 刊行된 듯 하나 현재까지 現存여부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完板 沈清傳의 刊行年代 및 그 系譜는 밝혀졌으나, 京板이나 安城板과의 관계와 完板 沈清傳을 낳게한 有緣寫本과의 比較 검토는 하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究明되어야 할 課題이며 本論考가 坊刻小說 研究의 基礎로서 比較 規準이 되어진다면 더없는 多幸이라 생각한다.

〈資料〉

完板 沈淸傳 各 本의 異文 比較 資料

- | | | | |
|--|--------------|-----------------|--------------|
| 1. 上1 a 7 | 2. 上 a 9 | 3. 上 3 b 8 | 4. 上4 a 12 |
| A. 양반의후예 형실이 | A. 심봉사 | A. 서가여리넝과 | A. 가기삿철만쳐보니 |
| B. 양반의후예 형실이 | B. 심봉사 | B. 서가여리넝이 | B. 아기삿철만쳐보니 |
| C. 양반의후예 형실이 | C. 심봉사 | C. 서가여리넝과 | C. 아기삿철만쳐보니 |
| D. 양반의후예 형실이 | D. 심봉사 | D. 서가여리넝과 | D. 아기삿철만쳐보니 |
| E. 양반으후여 형실이 | E. 삼봉사 | E. 서가여리넝이 | E. 아기삿철만쳐보니 |
| 5. 上5 a 11 | 6. 上 6 b 8 | 7. 上7 a 8 | 8. 上8 a 8 |
| A. 이여서반가오며 | A. 두위쁘니못다먹고 | A. 보중항읍쇼셔 | A. 흥기죽자 |
| B. 이여더반가오며 | B. 두어쓰나못다먹고 | B. 보중항읍쇼셔 | B. 흥기죽자 |
| C. 이여서반가오며 | C. 두위쁘니못다먹고 | C. 보중항읍쇼셔 | C. 흥기죽자 |
| D. 이여서반가오며 | D. 두위쁘니못다먹고 | D. 보중항읍쇼셔 | D. 흥기죽자 |
| E. 이여더반가오며 | E. 두어쓰나못다먹고 | E. 보중항읍쇼셔 | E. 흥기죽자 |
| 9. 上9 b 4 | 10. 上10 a 12 | | |
| A. 유치자이영세혜여 | A. 철과호희넝고 | | |
| B. 유치자이영세혜여 | B. 뉘와합기넝고 | | |
| C. 유치자이영세혜여 | C. 철과호희넝고 | | |
| D. 유치자이영세혜여 | D. 철과호희넝고 | | |
| E. 유치자이영세하니 | E. 뉘와합기넝고 | | |
| 11. 上11 a 1~3 | | | |
| A. 우리마누리사러뜰제인심으로성각호들팔세 하더어미업난어린겨신들안이불상호안
이불상호호 | | | |
| B. 우리마누리사러슬제인심으로성각호들차마엇지팔세 하더어미업난어린겨신들엇지안
이불상호호 | | | |
| C. 우리마누리사러뜰제인심으로성각호들팔세 하더어미업난어린겨신들안이불상호호안
이불상호호 | | | |
| D. 우리마누리사러뜰제인심으로성각호들팔세 하더어미업난어린겨신들안이불상호호안
이불상호호 | | | |
| E. 우리마누리사러슬제인심으로성각호들차마엇지팔세 하더어미업난어린겨신들엇지안
이불상호호 | | | |
| 12. 上12 a 9 | 13. 上13 a 6 | 14. 上14 b 12~13 | 15. 上15 b 8 |
| A. 줍사오릿가 | A. 먹것난이다 | A. 안진제 비사릅보고 | A. 심소제일어지뵈호고 |
| B. 갑사오릿가 | B. 먹것난이다 | B. 안진제 비사릅보고 | B. 심소제일어지뵈호고 |
| C. 줍사오릿가 | C. 먹것난이다 | C. 안진제 비사릅보고 | C. 심소제일어지뵈호고 |
| D. 줍사오릿가 | D. 먹것난이다 | D. 안진제 비사릅보고 | D. 심소제일어지뵈호고 |
| E. 갑사오릿가 | E. 먹것나니다 | E. 안진제 비사릅보고 | E. 심소제일러지뵈호고 |

16. 上16 a 8 17. 上17 a 7 18. 上18 b 5~6 19. 上19 b 5
- A. 살어쓰며 A. 심청이온자최형여긴가 A. 판출홀지리업서 A. 봉변을당하섯소
 B. 살어쓰며 B. 심청이온자최형여긴가 B. 판출홀지리업서 B. 봉변을당하섯소
 C. 살어쓰며 C. 심청이온자최형여긴가 C. 판출홀지리업서 C. 봉변을당하섯소
 D. 사러쓰며 D. 심청이온자최형여긴가 D. 판출홀지리업서 D. 봉변을당하섯소
 E. 자라쓰며 E. 심청이온자최형여긴가 E. 판출홀지리업서 E. 봉변을당하섯소
20. 上20 a 9 21. 上21 b 11~12 22. 上22 a 2 23. 上23 a 3
- A. 앓마베틀지달이다가 A. 허락하고 A. 근심치마르옵소서 A. 수기리고
 B. 앓마베틀지달이다가 B. 허락하고 B. 근심치마르옵소서 B. 수기리고
 C. 앓마베틀지달이다가 C. 허락하고 C. 근심치마르옵소서 C. 수기리고
 D. 앓마베틀지달이다가 D. 허락하고 D. 근심치마르옵소서 D. 수기리고
 E. 악가너틀기다리다가 E. 허락하고 E. 근심치마 읍소서 E. 수기리고
24. 上24 a 2 25. 上25 b 12~13 26. 上 26 a 1 27. 上 27 a 4 28. 上28 a 7
- A. 일거월너 A. 날근거지 A. 동영젓어더먹여 A. 사름주워 A. 피호오니
 B. 일거월너 B. 날근거지 B. 동영젓어더먹여 B. 사름주워 B. 피호오니
 C. 일거월너 C. 날근거지 C. 동영젓어더먹여 C. 사름주워 C. 피호오니
 D. 일거월너 D. 날근거지 D. 동영젓어더먹여 D. 사름주워 D. 피호오니
 E. 일거월너 E. 날근거지 E. 동영젓어더먹여 E. 사름주어 E. 표호오니
29. 上29 b 12~13 30. 上30 a 7 31. 下1 a 12
- A. 울어오고숫밧기 A. 슈원슈기하리요 A. 소동파늬던풍월은외구이있다.
 B. 울어오고숫밧기 B. 슈원슈기하리요 B. 소동파늬던풍월은외구이있다.
 C. 울어오고숫밧기 C. 슈원슈기하리요 C. 소동파늬던풍월은외구이있다.
 D. 울어오고숫밧기 D. 슈원슈기하리요 D. 소동파늬던풍월은외구이있다.
 E. 울고 ①숫밧기 E. 슈원슈기하리요 E. 소동파늬던풍월 외구이있다.
32. 下2 b 4 33. 下3 a 10 34. 下4 b 2~3
- A. 봉상수절이라야죽상지류 A. 초숙일시분명하다 A. 인당수레라광풍이
 B. 봉상수절이라야죽상지류 B. 초숙일실분명하다 B. 인당수레라광풍이
 C. 봉상수절이라야죽상지류 C. 초숙일시분명하다 C. 인단수레라광풍이
 D. 봉상수절이라죽상지류 D. 초수일시분명하다 D. 인당수레라광풍이
 E. 봉상수절이라야죽상지류 E. 초주일시분명하다 E. 인당수라 광풍이
35. 下5 a 1~2
- A. 오식탕슈와어동육서며좌포우혜와홍동빅셔를
 B. 오식탕슈와어동육서며좌포우혜와홍동빅셔를
 C. 오식탕슈와어동육서며좌포우혜와홍동빅셔를
 D. 오식탕수 ①어동육서 ②좌포우혜 ③홍동빅셔로
 E. 오식탕수 ④어동육서 ⑤좌포우혜 ⑥홍동빅셔 ⑦

36. 下6 b 8~9

- A. 물암이나주오두팔기물씩벌이고비전의나서보니
- B. 물암이나주오두팔기물씩벌이고비전의나서보니
- C. 물암이나주오두팔기물씩벌이고비전의나서보니
- D. 물암이나주오두팔기물씩벌이고비전의나서보니
- E. 물암이나주오두팔기물씩벌이고비전의나서보니

38. 下8 b 5

- A. 마구선여낙포선여
- B. 마구선여낙포선여
- C. 마구선여낙포선여
- D. 마구선여낙포선여
- E. 마구선여낙포선여

39. 下9 a 4

- A. 너동비 고리탄이적선과
- B. 너동빈 고리탄이적선과
- C. 너동비 고리탄이적선과
- D. 너동비 고리탄이적선과
- E. 너동빈 고리탄이적선과

37. 下7 b 12

- A. 무슈홀강홀제장과
- B. 무슈홀강홀제장과
- D. 무슈홀강홀제장과
- D. 무슈홀강홀제장과
- E. 무슈홀지장과

40. 下10 b 13

- A. 췌늑췌늑소리호며
- B. 췌늑췌늑소리호며
- C. 췌늑췌늑소리호며
- D. 췌늑췌늑소리호며
- E. 췌늑췌늑소리호며

41. 下11 a 13

- A. 청학빅학더런전비하고
- B. 청학빅학더런전비하고
- C. 청학빅학더런전비하고
- D. 청학빅청이런전비하고
- E. 청학빅학더런전비하고

42. 下12 b 1~2

- A. 이풀코이연하나
- B. 이풀코이연하나
- C. 이풀코이연하나
- D. 이답고이연하나
- E. 이통코이연하나

43. 下13 a 5

- A. 쏘홀아리버룻과
- B. 쏘환보지버룻과
- C. 쏘홀아리버룻과
- D. 쏘홀아리버룻과
- E. 쏘환보지버룻과

44. 下14 b 6~7

- A. 억십만금되물너여
- B. 억십만금되물너여
- C. 억십만금되물너여
- D. 억십만금되물너여
- E. 억십만금되물너여

45. 下15 a 5

- A. 방훈이야
- B. 영훈이야
- C. 방훈이야
- D. 방훈이야
- E. 영훈이야

46. 下16 a 11~12

- A. 그가온디예전나무와호도목이며
- B. 그가온디 전나무와호도목이며
- C. 그가온디예전나무와호도목이며
- D. 그가온디예전나무와호도목이며
- E. 그가온디 전나무 호도목이며

47. 下17 b 4

- A. 아무리서쁜들
- B. 아무리서쁜들
- C. 아무리서쁜들
- D. 아무리서쁜들
- E. 아무리서쁜들

48. 下18 b 10~11

- A. 편지들미고베가오는야
- B. 편지들미고베가오는야
- C. 편지들미고베가오는야
- D. 편지들미고베가오는야
- E. 편지들미고베 오는야

49. 下19 b 7

- A. 얼는빠서
- B. 얼는빠서
- C. 얼는빠서
- D. 얼는빠서
- E. 얼는빠서

50. 下20 a 11

- A. 선인의게팔여
- B. 선인의게팔여
- C. 선인의게팔여
- D. 선인의게팔여
- E. 선인의게팔여

51. 下21 b 7

- A. 예갑서
- B. 예갑서
- C. 예갑서
- D. 예갑서
- E. 예갑서

52. 下22 a 9~10

- A. 엽풀만저보니
- B. 엽풀만저보니
- C. 엽풀만저보니
- D. 엽풀만저보니
- E. 엽풀만저보니

53. 下23 b 12~13

- A. 오렘허 〓 후비사자에이넵더바라호트러진박석수문돌중 〓 ㅎ다어돌바라
- B. 오렘허 〓 후비사자에이넵더바라호트러진박석수문돌중 〓 ㅎ다어돌바라
- C. 오렘허 〓 후비사자에이넵더바라호트러진박석수문돌중 〓 ㅎ다어돌바라
- D. 오렘허 〓 후비사자에이넵더바라호트러진박석수문돌중 〓 ㅎ다어돌바라
- E. 오렘 에입넵더바라호트러진박석수문돌 돌바라

54. 下24 a 3

- A. 마잡독을니고안져썩니
- B. 마참독을니고안져썩니
- C. 마참독을니고안져썩니
- D. 마잡독을잡고안져썩니
- E. 마참독을니고안져더니

55. 下25 a 7~8

- A. 동벌형관하고
- B. 동벌형관하고
- C. 동벌형관하고
- D. 동벌형관하고
- E. 동벌향관하고

56. 下26 b 5~6

- A. 갈무기제비
- B. 갈무기제비
- C. 갈무기제비
- D. 갈무기제비
- E. 갈무 〓 제비

57. 下27 b 7

- A. 공명뿐이로다
- B. 공명뿐일소나
- C. 공명뿐이로다
- D. 공명뿐이로다
- E. 공명뿐일소나

58. 下28 a 4

- A. 관세음보살
- B. 관세음보살
- C. 관세음보살
- D. 관세음보살
- E. 관 〓 음보살

59. 下29 b 10

- A. 방이소리나
- B. 방이소리나
- C. 방이소리나
- D. 방이소리나
- E. 방이소리나

60. 下30 a 5

- A. 보썸의다술너허지고
- B. 보썸의다술너허지고
- C. 보썸의다술너허지고
- D. 보썸의다술너허지고
- E. 보집 〓 다술너허지고

61. 下31 a 10

- A. 물의잡겨쓰니
- B. 물의잡겨쓰니
- C. 물의잡겨쓰니
- D. 물의잡겨쓰니
- E. 물의잡겨쓰니

62. 下32 a 5

- A. 분형하고
- B. 분형하고
- C. 분형하고
- D. 분형하고
- E. 분향하고

63. 下33 b 10

- A. 몸을팔이여
- B. 몸을팔이여
- C. 몸을팔이여
- D. 몸을팔이여
- E. 몸을팔이여

64. 下34 b 13~35 a 1

- A. 일월리중화로다
- B. 일월리중화로다
- C. 일월리중화로다
- D. 일월리중화로다
- E. 열시구조홀로다

65. 下35 a 2

- A. 철도모르고춤출계
- B. 철도모르고춤출계
- C. 철도모르고춤출계
- D. 철도모르고춤출계
- E. 철도모르고춤출계

66. 下36 a 10

- A. 사헌의덥퍼쁘며
- B. 사헌의덥퍼쁘며
- C. 사헌의덥퍼쁘며
- D. 사헌의덥퍼쁘며
- E. 사헌의덥퍼쓰며

67. 下37 b 8

- A. 석일의공자게서도
- B. 석일의공자게서도
- C. 석일의공자게서도
- D. 석일의공자게서도
- E. 석일의공자게서도

68. 下38 b 12

- A. 금수단광모장을
- B. 금수단광모장을
- C. 금수단광모장을
- D. 금수단광모장을
- E. 금수단광보장을

69. 下39 b 9

- A. 피식디왈
- B. 피식디왈
- C. 피식디왈
- D. 피식디왈
- E. 피식디왈

70. 下40 b 13~41 a 1

- A. 삼년거상하라하시니라
- B. 삼년거상하라하시니라
- C. 삼년거상하라하시니라
- D. 삼년거상하라하시니라
- E. 삼년거상하마하시니라

71. 下41 a 2

- A. 무삼여홀이잇시리요
- B. 무삼여홀이잇시리요
- C. 무삼여홀이잇시리요
- D. 무삼여홀이잇시리요
- E. 무삼여홀이잇시리요